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전교인 수련회

일시: 2017. 9.9-10(토-주)

장소: Honor's Haven Resort, Ellenville, NY

- 송성현 형제 어머니 양홍남 성도께서 지난 수요일(12 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예배(입관예배)는 오늘 저녁 7 시 플러싱 중앙장외사 (162-14 Sanford Ave)에서 드립니다. 하관예배는 내일 정오

Kensinco Cemetery 에서 드립니다.

2017 년 7 월 안내: 이향복/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윤정호집사 /시편 139:1-12, 23-24

이번 주 친교: 오영숙/임수연 집사

다음 주 친교: 백희진/한주루 권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7월 16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10 장(통 34 장) 다함께
“전능 왕 오셔서”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19:105-112 안상민 집사

찬양(Choir)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창(Gen.) 35-1-15 인도자

설교 (Sermon)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338 장(통 364 장) 다함께
“내 주를 가까이”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7. 9. 주일 설교 요약

새로운 이름, 여전한 동행 (창 17:1-5)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를 통해, 정확히는 약속하신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신 회복,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폐하고 회복하시려는 것이 여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마 1:1) 예수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일도 여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행”하셨습니다. (“동행”이란 히브리 단어는 “가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동사인데, 가는 동작 자체가 아니라 걷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함께 걷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이 있는 동사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동산을 “거니시며”(같은 동사입니다)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예수를 통해 화목하게 하였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주신 분도,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이유와 가치와 존귀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내려하는 이름, 세상에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이름은 우리 생명의 가치를 만분의 일도 담지 못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향한 이름이 있습니다. 스스로 낸 이름만을 자랑하려는 우리에게 그 귀한 이름을 회복하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결국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이름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우주와 세계 전체를 향하시던 시선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 후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십니다. 수천년을 넘나들던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행적 하나 하나에 집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구원자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대야 합니다. 만물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여럿 중 나은 자를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를 믿고 따르는 자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기르시는 신실함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택함 받은 이유를 따져볼 일도 아닙니다.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따를 뿐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도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육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민족도 선민임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발된 것을 자랑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께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택하신 것은 현재의 우리 모습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데 이를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름은, 지금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동행이 완성되는 소망, 그때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신실하심 때문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자격을 보고 가족을 선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으며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서로 불려야 합니다.